

# 노년기 부부의 결혼적응과 정신건강간의 관계에서

## 성인자녀관계의 매개효과

### : 자기상대방효과 상호의존모형 적용(APIM)

#### Mediating Effects of Adult-Child Relationship and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of Elderly Couples

#### : An Application of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시간강사 이주연\*

교수 정혜정\*\*

Dept. of Child Studies, Chunbuk National Univ.

Lecturer : Lee, Ju-Yeon

Professor : Chung, Hye-Jeong

---

#### <Abstract>

The primary focus of the study assesses how individual spouses' and their partners' marital adjustment influence their own and their mental health. The study also examines whether this influence was mediated by the relationship with their adult-children. Data were collected from 271 dyads of elderly couples by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Marital adjustment was measured in terms of intimacy and comparison level of marriage. Mental health was measured in terms of depressive mood, anxiety, and somatization.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analysis revealed that marital adjustmen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one's own mental health and with one's own relationship with their adult-children, but not with their partner's.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ship with adult-childre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one's own and with their partner's mental health. Furthermore, analysis of the mediating model using APIM indicated that marital adjustment through one's own adult-children relationship had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one's own mental health.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wives' mental health were directly influenced by their partners' relationship with adult-children. However, the effect of the husbands' mental health was not significant. These findings highlight dyadic interdependence among spouses' perceptions of marital and adult-children relationship with their mental health. The results suggest implications for educators and clinicians working with elderly couples to improve their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health.

---

▲주요어(Key Words) : 노년기 부부(elderly couples), 결혼적응(marital adjustment), 정신건강(mental health), 성인자녀관계(relationship with adult-children),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

---

\* 주저자 : 이주연 (E-mail : tulee0221@hanmail.net)

\*\* 교신저자 : 정혜정 (E-mail : chunghj@jbnu.ac.kr)

## I. 서론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실제 건강수명은 71세로 노인들의 상당수가 신체 및 정신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보건기구, 2009). 65세 이상 노인들의 약 87%가 신체 질병을 가지고 있고, 노인 자살률이 20대의 자살률보다 7배나 높으며 자살 원인들 중 80%가 우울증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9). 노인들 중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은 100명 중 8명에 이를 정도로 매우 흔하며, 불안증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국민일보, 2010, 10, 25). 과거의 주요 노인문제는 빈곤, 사회적 고립, 질병 등이었으나, 최근의 노인문제는 자살, 외로움, 소외,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다. 노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결국에는 남아있는 나머지 노후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 시대로 다가감에 따라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노인들의 정신건강 수준 향상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노년기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건강을 다룬 국내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한편,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신건강 변인으로 주로 우울을 다루었으며(Kim, 2004; Kim et al., 2011; Yoo & Sung, 2009), 불안은 죽음과 관련하여 일부만 살펴보았을 뿐(Lee et al., 2010; Yeo & Kim, 2005) 그 외 긍정적 차원으로는 생활만족도, 삶의 만족도, 행복감, 성공적 노후 등을 부정적 차원으로는 대부분이 우울만을 측정하였다(Cho & Choi, 2011; Jeong, 2012; Son, 2005; Song & Marks, 2006). 그러나 임상적으로 노년기의 우울은 단지 우울 증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울로 인한 신체적 증상의 호소와 함께 불안증이 동반되어 나타나며, 신체적 증상 역시 우울, 불안과 깊은 연관이 있다(Elkowitz & Virginia, 1980). 따라서 지금까지의 노년기 정신건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노년기의 다양한 심리적 증상 문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노년기의 정신건강을 우울과 함께 불안, 신체화 증상으로 나누어 접근한다면 노년기의 정신건강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건강, 학력, 경제력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Kim et al., 1998; Kwon & Cho, 2000)이나 자아존중감, 자기통합감 등을 나타내는 심리적 특성변인(Ahn, 2003) 보다는 성인자녀와의 세대간 결속,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만족도 등을 나타내는 가족관계 특성이(An & Jun, 2012; Cho & Choi, 2011; Kim, 2004; Song & Marks, 2006; Yoo & Sung, 2009)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있어 더 큰 의미를 부

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An, 2005; Bae & Park, 2009; Yoo & Sung, 2009). 가족관계 특성들 중에서도 특히 부부관계와 성인자녀관계가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 Kim, 2004; Song & Marks, 2006; Yoo & Sung, 2009).

먼저, 부부와 같은 친밀한 관계는 개인의 심리적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고통에 대해 완충역할을 한다(Karney & Bradbury, 1995). 그리고 기혼자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심리적 행복의 예언변인은 양질의 결혼생활인 것으로 나타났다(Russel & Wells, 1994). 이처럼 부부관계에서 경험되는 만족감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년기의 특성 상 배우자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모든 생활에 부부관계가 기본이 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신과의 결혼생활을 만족스러워하면 심리적 행복이 커지고, 자신도 상대방과의 결혼생활을 만족스러워 하면 심리적 행복은 물론 결혼 만족도의 상호성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최근까지의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남녀 노인 각자가 지각한 응답에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거나(Cho & Choi, 2011; Jeong & An, 2012; Kim et al., 2012; Lee & Kim, 2004), 자료를 부부 쌍으로 수집하였어도 분석에서는 남편과 부인을 구분하여 살펴본 형태가 대부분이다(Kim & Lee, 2003). 그러나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는 남편과 부인 어느 한 쪽의 특성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남편-부인인 부부의 상호작용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상호 역동성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 있다(Kenny, 1996). 즉 커플관계에서는 두 개인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특성이 자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신의 특성이 상대배우자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부와 같은 상호의존성의 자료를 각각 독립된 자료 형태로 분석한다면 영가설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제1종 오류를 크게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의존적인 커플자료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t Model: APIM)을 적용하여 분석해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Kenny, 1996).

다음으로 연령대마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각각 다르나 노년기에는 배우자와의 관계와 더불어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정신건강과 큰 연관이 있다(Song & Marks, 2006; Yoo & Sung, 2009). 특히 서구와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노부모의 우울감이 감소하고, 심리적 안녕이나 성공적인 노화에 긍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성인자녀의 성공을 대리 만족 욕구로 삼는 경우가 많으며, 성인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지고, 정신건강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와의

관계와 함께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노년기의 정신건강과 부부관계 및 성인자녀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이 변인들을 함께 포함하여 인과관계를 구체화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부의 상호 의존성과 역동성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부부 쌍 자료를 쌍 자료 분석에 적합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Kenny, 1996)에 적용하였다. 즉 노년기의 부부관계 특성을 나타내는 결혼적응(결혼비교수준, 친밀감), 성인자녀관계, 정신건강(우울, 불안, 신체화)간의 관계 모형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각각 살펴보고, 각 효과가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또한 노년기 부부의 결혼적응과 정신건강간의 관계에서 성인자녀관계가 매개하는 매개모형을 설정하여 각 경로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년기 부부의 결혼적응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부부의 상호 의존 및 역동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주요 변인들간의 관계에서 자신의 지각 뿐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행동 및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하여 노년기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임상적 개입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문제제기와 연구목적에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연구 모형 <Figure 1>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주요 변인(결혼적응, 성인자녀관계, 정신건강)간 관계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각 효과의 크기는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

[1-1] 결혼적응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각 효과의 크기는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

[1-2] 결혼적응이 성인자녀관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각 효과의 크기는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

[1-3] 성인자녀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각 효과의 크기는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노년기 부부의 결혼적응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인자녀관계의 매개효과와 매개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노년기의 정신건강

정신건강이란 정신질환의 유무를 지칭하는 정신 병리학적인 개념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질환이라는 부정적인 측면 뿐 아니라 건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의 정신 상태까지 포함하는 다각적이고도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Son, 2005).

한편, 본 연구에서는 노화와 함께 동반하여 주로 나타나는 노년기의 정신건강으로 우울, 신체화, 불안을 살펴보았다. 우울은 노인 인구의 약 15~25%가 고통 받고 있을 정도로 노년기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이다. 노년기의 우울은 신체적 증상 호소와 함께 우울로 인한 불안, 불편감, 공허감, 망상적·편집증적 사고의 경향성, 가성치매 및 현저한 기억장애와 동반되어 나타내기도 한다(권석만·민병배, 2005). 또한 노년기에 경험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인 은퇴, 은퇴로 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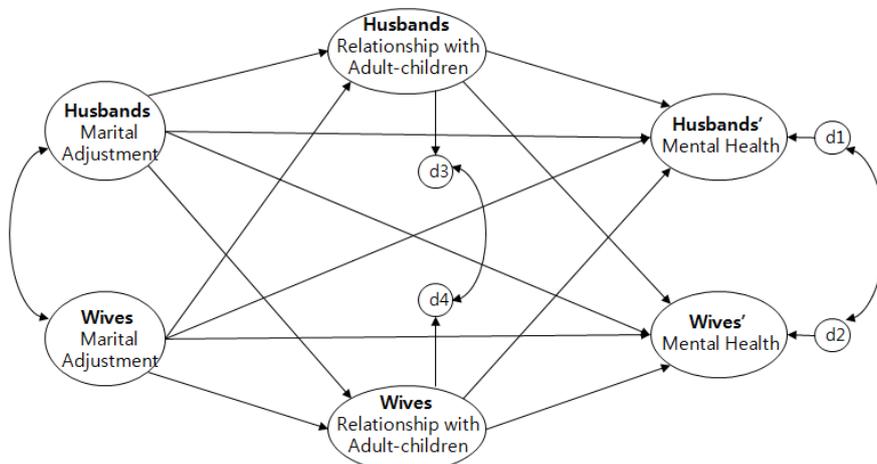


Figure 1. Hypothesized Research Model

역할상실, 경제사정의 악화, 사회로부터의 고립, 자녀의 출가, 신체적 질병 등 급격한 생활 변화로 우울의 그 심각성이 더해져 자살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 노년기에 나타나는 신체화 증상이란 노년기에 신체 건강에 대한 이해에 병리적 왜곡이 생길 경우 노인들에게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며(Sheehan & Banerjee, 1999), 노인의 80%가 신경통, 관절염, 심장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팔다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며, 숨이 차고, 손발이 차다는 등의 호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신체화 증상들 역시 노화 및 노년기의 우울과 깊이 관련되어 우울증에 대한 심리적 증상을 신체화 증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Elkowitz & Virginia, 1980) 많은 노인들이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호소하기보다는 이를 신체화 증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또 죄책감, 대인 갈등, 분노 등이 말로 표현되기보다는 신체적인 형태, 건강 염려증의 형태 등으로 표현되는 경향도 있다. 특히 인내를 강조하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신체화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된다(Han & Lee, 2009).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나타나는 불안이란 신체적 질병,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 혹은 사별, 재정적인 곤란 등으로 유발되나 노인의 불안증은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불안이 우울과 함께 나타날 경우 일차적으로 우울증으로 진단을 내리고, 노인들이 불안을 호소할 경우에도 노년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불안에 의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도 내과적 질환의 일부나 혹은 신체적 노화의 일부로 오인되기도 한다(권석만 · 민병배, 2005; Cho, 2002). 이상과 같이 노년기에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는 우울증 뿐 만 아니라 신체화 증상 및 불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빈번하게 발현될 수 있다.

## 2.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 및 선행연구 고찰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을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심리적 변인들과 가족관계 변인들이 있다(Ahn, 2003; An & Jun, 2012; Cho & Choi, 2011; Kim, 2004; Kim et al., 1998; Kwon & Cho, 2000; Song & Marks, 2006; Yoo & Sung, 2009). 이 중 우리나라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서구와 다르게 가족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있어 부부관계와 성인자녀관계가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규명되고 있다.

무엇보다 노년기는 생활 범위가 가족으로 축소되는 시기인 동시에 연장된 평균수명으로 부부가 함께 지내야 할 기간이 장기화되어 노년기의 부부관계 정도에 따라 이후 노년기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 부부관계란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지속적이며

긴밀하고 상호 역동적인 2자 관계로, 관계란 자기와 타인이 존재하므로 각각의 특성은 관계에 상호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Higgins, 1989). 특히 노년기의 부부관계는 가족생활주기 상 어떤 부부들보다 함께 지낸 기간이 훨씬 긴 관계이고면서 상호의존도가 더욱 높아져 배우자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크다. 즉 노인들은 배우자를 통해 존재감과 안정감을 얻고 배우자 유무만으로도 노인의 삶의 질이나 심리적 적응에 차이가 나타나며(Kim, 2004), 배우자에 대한 친밀감 및 만족도의 증가는 심리적 적응 및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ee & Kim, 2004; Yoo & Sung, 2009). 따라서 노년기의 부부간 결혼적응 수준이 낮으면 부부갈등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노인들의 정신건강은 물론 기대수명까지도 달라질 것이라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부부관계 특성을 나타내는 결혼적응 정도를 잘 반영하기 위하여 첫째, 친밀감을 살펴보았다.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오히려 긴밀해져 부부간에 감정적 친밀감을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다(Carstensen, 1993). 반면에 부부간 친밀감이 결여되면, 부부관계에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여 심리적 부적응, 우울, 불안, 신체적 증상이나 정서적 장애 등을 초래한다. 둘째로 노년기 부부는 오랜 세월을 함께 해 왔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나,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습관과 두려움 때문에 결혼생활을 지속시키는 경우,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 애정과 큰 충돌도 없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생활해 온 경우 등 결혼이 불만족스럽더라도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Yoon & Schumm, 1993)가 많기 때문에 이런 노년기 부부관계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관적이고 전반적인 만족을 나타내는 결혼만족도와 같은 지표보다 현재의 결혼관계가 다른 관계나 지금까지의 결혼관계에 비해 어떠한지를 사회교환이론의 기본 개념에 적용시킨 결혼비교수준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객관적인 것이다.

노년기의 가족관계 특성 중 부부관계 만큼이나 중요한 관계는 성인자녀관계라 할 수 있다(Yoo & Sung, 2009). 노년기는 다른 가족주기보다도 가족원들간의 상호 밀접한 유대감을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에 성인자녀와의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특히 노인세대에서는 자녀중심의 가족 특성을 더욱 유지하고 있고, 전통적인 유교문화 속에서 자녀가 잘 되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성공적인 노후의 준거로 본다(Yoon & Yoo, 2006). 때문에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노부모의 삶의 만족이 높아지고, 심리적 행복감도 높게 나타나며, 성인자녀와의 질적인 상호관계도 노인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Park, 2004). 그러나 성인자녀관계 변인의 대부분이 접촉빈도, 거주 근접성, 세대간 결속력, 상호

도움 정도 등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양적인 관점에서만 주로 이루어져 있어 성인자녀와의 유대관계나 노부와 성인자녀간의 정서적 역동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와 성인자녀와의 상호작용 관계 패턴을 심리적 거리로 나타내는 가족분화의 한 파트너 부모와 자녀관계 분화로 살펴보고자 했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간의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노년기의 부부관계를 나타내는 결혼적응 정도가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년기의 결혼적응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며(Antonucci, 1990; Tower & Kasl, 1996), 결혼적응과 정신건강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지속적인 결혼긴장은 이혼보다 부부의 정신건강에 훨씬 더 부정적이며, 건강한 부부관계는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중요한 완충물로 작용하였다(House & Robbins, 1983). 또 부부간의 높은 친밀감은 개인의 신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은 영향을 주나(Antonucci, 1990; Broucke et al., 1996), 부부간의 친밀감 부족 시 심한 경우 사회 심리적 부적응이나 정서적 장애까지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tton & Waring, 1984). 특히 결혼 부적응은 우울을 높이고, 우울증상에 대한 결혼적응의 영향력은 남편보다 부인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Tower & Kasl, 1996). 남편의 정신건강은 부인의 지지가 부족하거나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심각하게 되며(Atchley, 1992; Ross, 1995), 부부관계의 불만족이나 갈등은 퇴직한 남편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내연구에서도 노년기 부부의 부정적 결혼관계는 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Yoo & Sung, 2009),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불안, 우울의 경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5). 노년기 부부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결혼한 노년 여성의 외로움이 감소하는 등 노년 여성의 외로움에 대해 노년기 부부관계의 질이 중요변인으로 나타났으며(Jun & Im, 1998), 우울이 부부의 결혼갈등의 결과 현상 중 하나라고 보고하였다(Kim & Lee, 2003). 특히 결혼적응과 우울간의 관계가 여성에게 더 중요하게 나타났으며(Lee & Kim, 2004; Son, 2005),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와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Yoo & Sung, 2009). 또한, 남편의 부부갈등과 부인의 부부갈등간의 높은 정적상관, 부부간 생활만족도간의 높은 정적상관은 노년기 부부갈등과 생활만족도가 배우자와의 갈등 및 생활만족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면서, 남편의 생활만족도는 부인의 갈등과, 부인의 생활만족도는 남편의 갈등과 부적상관을 보였다(Kim & Lee, 2003).

노년기의 정신건강은 또한 성인자녀와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노부모의 정신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Abbey, Abramis, & Caplan, 1985), 노부모가 성인자녀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증가하는 반면, 성인자녀와 갈등이 높을수록 노부모의 심리적인 복지감에 심리적인 손상 즉 우울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Quinn, 1983). 국내연구에서도, 성인자녀와의 잦은 접촉빈도와 긍정적인 관계, 정서적 지원은 노인의 우울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Ann, 2005; Kim & Jun, 2002). Song and Marks (2006) 연구에서도 성인자녀 관계의 긍정적 측면(정서적 지원, 대화, 거주 근접성)이 노부모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반면, 성인자녀관계의 부정적 측면(갈등관계, 동거, 성인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은 노부모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성인자녀와 유대관계는 또한 노부모의 생활만족과 사기 및 심리적 안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Kim & Kim, 2000; Oh, 2003), 노인 자신을 더 가치 있게 인정하며 신체적 증상이나 우울한 기분을 덜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Shin & Seo, 1992). 그리고 노인에게 중요한 지지체계로서의 성인자녀의 주관적 유대관계가 원만할수록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며, 만족스러운 정서적 교류도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 Cho, 2000).

마지막으로 노년기의 결혼적응과 성인자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년기의 결혼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계요인으로 성인자녀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노년기의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증명하는데 노년기의 부부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그러나 발달주기 상 노년기 이외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착은 부부관계가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녀와의 만족스러운 관계는 부부관계가 우선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로 형성되어야 함을 보고하였고(Kim, 1995),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는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는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1995). 실제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불화가 있는 경우 자녀와의 갈등이 높은 반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조화로울 때 자녀와의 관계도 수용적 이었으며(Hong, 2010), 노년기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는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성인자녀와의 관계는 손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Jeong, 2012) 등 부부관계의 질은 부모-자녀관계의 질로 전환된다(Cowan & Cowan, 1992). 또한 가족체계론적 접근방법에 따른 발달적 연구나 임상적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부부관계의 질이 자녀와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안정된 결혼관계가 부모자녀간의 균형있는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상의 연구들은 노년기의 부부관계와 정신건강 혹은 성인자녀관계와 정신건강에 대한 효과를 단순하고 단편

적으로 파악하였을 뿐 노년기 부부의 결혼적응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인자녀관계가 매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부부관계와 자녀관계 모두 만족할수록 우울이 낮아지고, 가족 결속력이나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며(Kim, 2003; Lee, 2005), 노년기의 인지적 건강과 우울에 있어서 자녀관계 만족도가 중재효과를 나타냈다(Yoo & Sung, 2009). 또한 노년기의 부부관계,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 정도가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노인의 정신건강, 우울, 외로움, 심리적 복지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녀와의 접촉 빈도, 자녀와의 결속도, 가족지지 및 자녀와의 동거 유무 등을 포함하는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노년기의 결혼적응은 성인자녀관계를 통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 3. 부부의 상호의존성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

부부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짝을 이루는 대상들은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두 사람이 함께 한 기간이 길수록 상호의존성의 그 크기 또한 증가한다(Kenny & Nasby, 1980). 상호의존성(interdependent)이란 이자관계(dyad relation)에서 한 쪽의 반응(감정, 행동, 지각 등)에 따른 다른 쪽이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Kenny & Nasby, 1980), 짝 자료의 전형적인 형태인 부부관계에서 많이 나타난다. 부부는 비슷한 나이,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의사소통, 한 가정에서 자녀 혹은 친인척들과의 상호작용, 가정 분위기 등의 영향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 운명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Kenny & Nasby, 1980). 따라서 부부로부터 얻어진 자료들의 값은 서로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도 연인, 부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주요 경험적 연구들은 두 사람간의 관계에 상호의존성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kenny, kashy, & Cook,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부적절한 자

료 표집과 분석 방법으로 타당한 연구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Maguire, 1999). 따라서 부부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이룬 대상들(연인, 부모-자녀 등)을 연구할 때는 측정된 자료들이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상호의존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짝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의존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특성이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Kenny, 1996).

부부 및 친밀한 짝 관계 등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Kenny(1996)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을 제안하였다. APIM은 짝 관계에 있는 자료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짝 자료를 독립적인 자료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생기는 제 1종 오류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APIM은 분석단위가 짝이지만 결국은 내재된 두 개의 개인자료를 분석하고, 한 개인의 독립변수가 자신의 종속변수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종속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즉 APIM에는 두 가지 효과, 자신의 특성(심리, 행동 등)이 자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actor effect)와 자신의 특성이 상대방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나 상대방의 특성이 자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효과(partner effect)가 있다(Kim & Seo, 2010). 한편, APIM에는 통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독립변수간 상관과 잔차간 상관에 대한 가정이 있다(Cook & Kenny, 2005; Cook & Snyder, 2005)<Figure 2>. 독립변수간 상관(H1과 W1의 상관)에 대한 가정은 짝 관계에 있는 두 구성원(남편과 부인)은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간에 상관이 있으리라 예측되어 설정한다(Cook & Snyder, 2005). 또 독립변수간 상관은 H1변수가 H2변수를 예측할 때, 다른 독립변수인 W1변수를 통제함을 의미하여 자기효과를 추정할 때에 상대방효과는 통제되고, 상대방효과를 추정할 때는 자기효과가 통제된다. 잔차간 상관(d1과 d2간 상관)에 대한 가정은 H2와 W2라는 종속변수를 추정할 때, H1과 W1으로 추정되지 않은 부분(잔차)이 다른 변수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Kim & Seo, 2010). 즉 연구자가 설정한 독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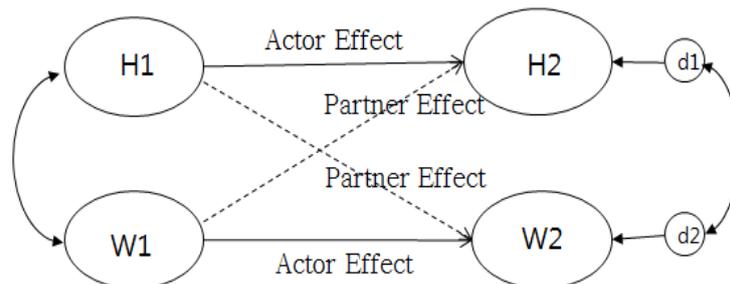


Figure 2. Actor-Partner Interdependent Model(APIM)

변수들의 순수한 설명량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과 표집방법

본 연구는 APIM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분석 단위를 부부 쌍으로 하였다. 정년퇴직 연한을 기준으로 은퇴 이후 고용되지 않은 55세 이상의 남성과 그 부인을 노년기 부부<sup>1)</sup>로 규정하고, 편의표집과 눈덩이 표집을 함께 곁하여 전라북도지역의 노년기 부부 모두가 설문에 참여했을 때만 분석 자료에 포함시켰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신상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설문지에 부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동의 코드를 사전에 부여하고 남편용과 부인용으로 구분하였다. 응답자들이 솔직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우자의 설문지를 보지 말 것을 부탁하였으며 설문이 끝난 후에는 설문지를 바로 회수용 봉투에 넣어 밀봉하도록 하였다. 배포된 340쌍의 설문지 중 291쌍의 자료가 회수되었고, 부실응답 기재 및 신뢰성이 의심되는 것을 제외한 271쌍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연령은 남편 61~65세(40.2%)가, 부인 55~60세(52.7%)가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남편 64.69세, 부인 60.96세로 노년기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초기 노년기(연소노인 부부)에 해당된다. 학력은 남편 대졸(40.8%), 부인 고졸(44.3%)이 가장 많았고, 평균 교육기간은 남편 14.02년, 부인 11.18년 이었다. 건강상태는 남편(88.8%)과 부인(80.9%) 모두가 건강한 편(건강하다, 보통이다)으로 나타났고, '연금(42.7%)과 퇴직금(37%)'으로 생활하는 부부가 많았다. 사회활동 빈도는 1주에 1~2번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남편 39.9%, 부인 43.7%), 사회활동 참여유형으로 남편은 '가끔씩 부부가 함께 한다(40.3%)'가 부인은 '주로 혼자(41.9%)'가 많았다. 평균 결혼지속기간은 36.29년이었고, 반절 이상(51.3%)이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형태였다.

#### 2. 측정도구

##### 1) 결혼적응

결혼적응은 결혼 비교수준과 친밀감으로 구성되어 측정하였다. 결혼 비교수준은 Thibaut and Kelley(1959)의 비교

수준 개념을 기반으로 Yoon and Schumm(1993)이 개발한 결혼관계에서의 비교수준 척도(the Comparison Level Scale in marital relationships)를 노년기 부부관계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총 6문항, 5점 Likert식 척도로 자신의 경험과 기대를 비교하여 현재 결혼관계가 다른 관계나 이제까지의 결혼관계와 비해서 어떠한지를 평가하게 했다(예; 나는 나의 결혼에서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얻고 있다, 나의 결혼은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지 않는다 등).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의 결혼관계를 긍정적이고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신뢰도는 남편 .84, 부인 .88이었다.

친밀감은 Miller and Lefcourt(1982)의 척도(The Miller Social Intimacy)를 본 연구자가 번안,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개방, 공감경험, 애정표현, 정서적으로 가까운 정도 등을 평가하며 총 17문항,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에 느끼는 친밀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남편 .91, 부인 .90로 나타났다.

##### 2) 성인자녀관계

성인자녀관계는 가족분화 척도(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Anderson & Sabatelli, 1992; Nam, 2001)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가족의 각 하위체계간 분화들 중 부모-자녀관계의 분화만을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노년기 부부가 지각한 자녀관계의 분화한 노년기 부부가 성인자녀와의 정서·심리적 거리 및 관계 정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녀와의 상호작용 패턴을 의미한다. 총 11문항(긍정 6개, 부정 5개), 5점 Likert식 척도로 부모-자녀관계 분화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자녀와의 관계 분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이는 노년기 부부가 성인자녀와 정서·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신뢰도는 남편 .76, 부인 .74로 나타났다.

##### 3) 정신건강

정신건강은 간이정신진단검사(SCL - 90 - R) 단축형(the Brief Symptom Inventory - 18; BSI - 18)(Derogatis, 2000)를 사용하였다. BSI - 18은 우울, 불안, 신체화 각 요인 당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은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1점(전혀 없다) ~ 4점(아주 심하다)까지의 4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가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불안, 신체화의 증상이 많아짐을 나타낸다. 신뢰도 검사 결과, 남편은 우울 .88, 불안 .87, 신체화 .79 이었고, 부인은 우울 .84, 불안 .85, 신체화 .81 이었다.

1) 연구대상을 55세 이상, 남편이 은퇴한 상태의 부부를 노년기 부부로 한 것은 우리사회 퇴직 정년 대부분이 55~60세 사이로 60세 이전에 이미 사회적 노인이 되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 55세 이상자를 고령자로 규정한 것 등을 반영한 것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위한 기술통계와 신뢰도를 위한 Cronbach's  $\alpha$  계수 산출, 관측변수들간의 상호관련성과 방향성,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SPSS WIN 18.0을 사용하였고, APIM 분석을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였다. APIM 분석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하게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Kenny et al, 2006), 모형 검증을 통해 추정치들간의 크기를 통계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Cook & Kenny, 2005)과 변수가 잠재변수일 경우 측정오차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모수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모형 적합지수로는  $\chi^2$ 와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TLI와 CFI가 .95이상이고 RMSEA가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를 가진 모형, TLI와 CFI가 .90~.95이며 RMSEA가 .05~.08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를 가진 모형, RMSEA가 .08~.10이면 보통 적합도(mediocre fit)를 가진 모형으로 해석하였다(홍세희, 2000).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의 효과간의 상대적 크기 비교를 위해 등가제약(equality constraint)을 설정한 모형과의  $\chi^2$  차이 검증으로 확인하였고(kenny & Cook, 1999),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Baron & Kenny, 1996)로 실시하였다. 한편, APIM에서 통계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독립변수간 상관과 잔차간 상관을 본 연구모형에서도 적용하여 독립변수인 남편의 결혼적응과 아내의 결혼적응의 상관과 잔차인 d1과 d2간 상관과 d3과 d4간 상관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특성

1) 주요변수의 기술 통계치

먼저, 노년기 부부의 결혼적응, 성인자녀관계, 정신건강을 살펴보면 <Table 1>, 결혼적응의 결혼비교수준 평균과 표준편차는 남편 3.51(.77), 부인 3.12(.95), 친밀감은 남편 3.47(.70), 부인 3.34(.76)으로 중앙값보다는 높게 나타나 노년기 부부의 결혼적응은 전반적으로 좋았다. 성인자녀관계도 남편 3.62(.58), 부인 3.67(.57)로 중앙값보다 높게 나타나 자녀와의 관계의 질도 기능적 이었고, 정신건강은 4점 척도 중 남편은 1.50(.54)~1.71(.59), 부인은 1.64(.53)~1.75(.57)로 중앙값보다 낮아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다음으로 결혼적응, 성인자녀관계, 정신건강에 대한 부부간 차이를 보면, 성인자녀관계를 제외한 결혼적응과 정신건강의 우울과 신체화에서 부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결혼적응의 결혼비교수준( $t = 7.50, p < .001$ )과 친밀감( $t = 3.14, p < .01$ ) 모두 남편이 부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정신건강의 우울( $t = -3.56, p < .001$ )과 신체화( $t = -4.78, p < .001$ )는 남편보다 부인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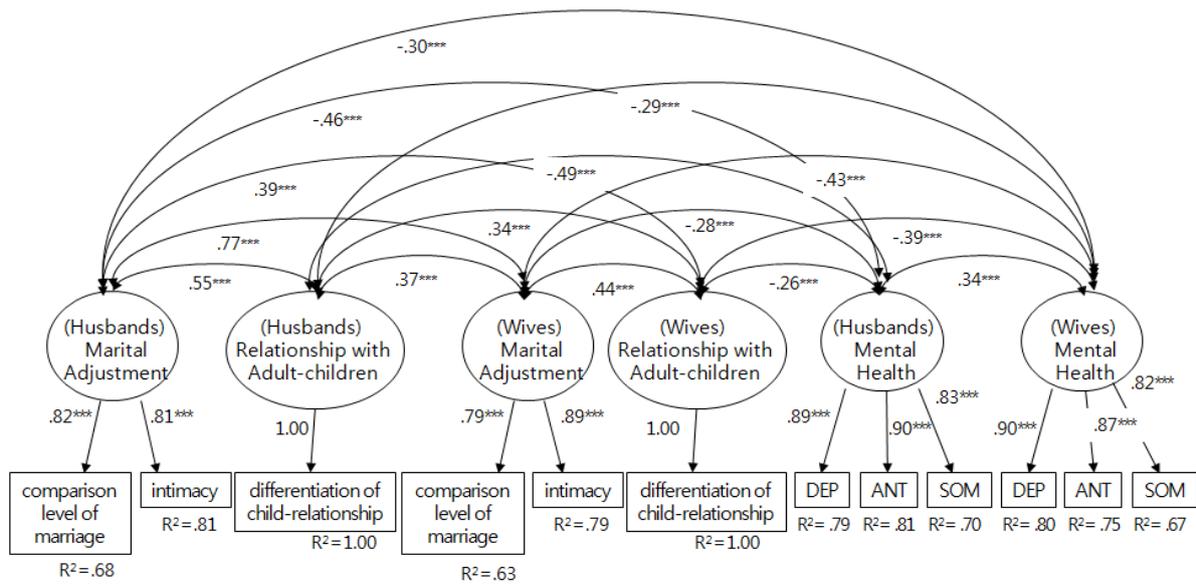
2)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및 정규성

측정모형 검증에 앞서 관측 변수들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모든 변수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Appendix> 참조).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이 지각한 결혼적응과 성인자녀관계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남편  $r = .41 \sim .49$ , 부인  $r = .34 \sim .39$ )으로 나타났고, 결혼적응, 성인자녀관계 및 정신건강간에는 유의한 부적상관(남편  $r = -.27 \sim -.46$ , 부인  $r = -.22 \sim -.42$ )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이 지각한 결혼적응, 성인자녀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Husbands	Wives	paired-t
Marital adjustment	comparison level of marriage	3.51(.77)	3.12(.95)	7.50***
	Intimacy	3.47(.70)	3.34(.76)	3.14**
Relationship Adult-children	differentiation of child relationship	3.62(.58)	3.67(.57)	-1.44
Mental Health	depressive mood	1.50(.54)	1.64(.53)	-3.56***
	anxiety	1.71(.59)	1.75(.57)	-1.00
	somatization	1.55(.47)	1.73(.55)	-4.78***

\* $p < .05$ , \*\* $p < .01$



Note) standardized coefficients, correlational coefficients, \* $p < .05$ , \*\* $p < .01$ , \*\*\* $p < .001$   
 DEP : depressive mood, ANX: anxiety, SOM: somatization

Figure 3. Measurement Model

관계와 상대방 배우자가 지각한 결혼적응, 성인자녀관계간 상관은 유의한 정적상관( $r = .29 \sim .60$ )을 나타냈으나, 자신의 결혼적응, 성인자녀관계와 상대방 배우자가 지각한 정신건강간의 상관은 유의한 부적상관(남편  $r = -.15 \sim -.31$ , 부인  $r = -.16 \sim -.26$ )을 나타냈다. 남편의 정신건강과 부인의 정신건강 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 $r = .19 \sim .30$ )을 나타내어 남편과 부인의 정신건강은 서로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다음으로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측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Appendix>, 본 연구의 모든 관측변수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았다. 이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경우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킨다는 연구(Finch & West, 1997)에 의거해 본 연구의 모든 관측변수들이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나타낸다.

2. 연구모형의 검증

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 남편과 부인의 자료를 합하여 12개의 관측변수들이 결혼적응, 성인자녀관계, 정신건강 등 총 6개의 잠재변수를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chi^2 = 88.53, df = 41, p < .001, TLI = .96, CFI = .97, RMSEA = .066$ )(<Figure 3> 참조). 또한, 각 잠재변수를 설명하고 있는 해당 관측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재되었고,

SCM( $R^2$ )의 값도 모두가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측정하였고 신뢰롭다고 볼 수 있다.

2) 주요 변수간 관계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먼저, 결혼적응이 성인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및 효과간 크기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Figure 4>와 같이 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적합지수가  $\chi^2 = 9.38, df = 4, p > .05, TLI = .97, CFI = .99, RMSEA = .07$ 으로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를 가진 모형으로 자료가 전체적으로 적합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과 부인 모두 결혼적응이 성인자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부부 모두 자기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남편과 부인의 자기효과에 있어서 부부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가제약을 가하여 살펴보았다. 즉 결혼적응이 성인자녀관계에 미치는 남편의 자기효과( $\beta = .59$ )와 부인의 자기효과( $\beta = .34$ )의 크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가제약을 가하여 기본 모형과의 카이제곱 차이 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 $\Delta df(1), \Delta \chi^2 = 5.32$ )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결혼적응이 성인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크기가 부인보다 남편에게서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적응의 남편과 부인간의 상관은  $r = .72$ 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편과 부인

2) 기본 모형과 등가제약 모형 각각에서 얻어진  $\chi^2$  값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자유도 1에서 3.84이상이면 유의한 차이가 있다( $\alpha = 0.05$  수준에서)(kenny & Cook,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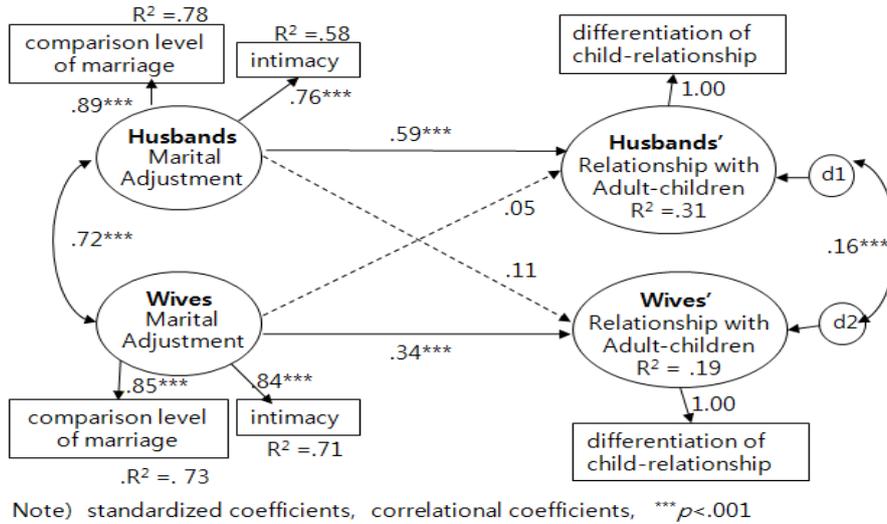


Figure 4. Actor-Partner Effects of Marital Adjustment on Relationship with Adult-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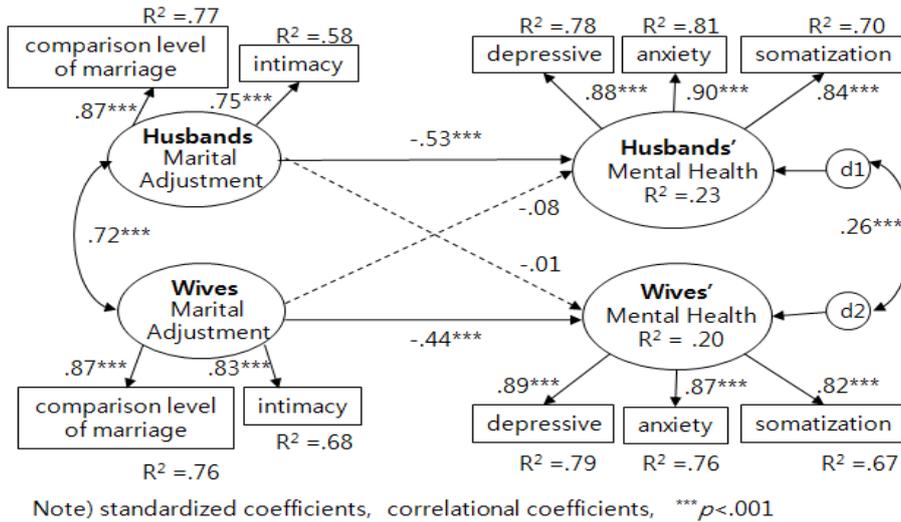


Figure 5. Actor-Partner Effects of Marital Adjustment on Mental Health

의 성인자녀관계에서의 상관도  $r=.16$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혼적응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및 효과간 크기 비교를 위한 모형설정과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Figure 5>, 적합지수가  $\chi^2 = 55.05$ ,  $df = 28$ ,  $p > .01$ , TLI = .97, CFI = .98, RMSEA = .06으로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의 모형으로 자료가 전체적으로 적합하게 나타났다. 남편과 부인 모두 결혼적응이 정신건강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부 모두 자기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남편과 부인 모두 자기 자신이 지각한 결혼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증상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적응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남편의 자기효과 크기( $\beta = -.53$ )와 부인의 자기효과 크기( $\beta = -.44$ )간에 등가제약을 가하여 그 크기를 비교한 결과( $\Delta df(1)$ ,  $\Delta \chi^2$

= 1.36),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결혼적응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자기효과 크기가 부부간에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결혼적응의 남편과 부인간의 상관( $r=.72$ )과 정신건강의 남편과 부인간의 상관( $r=.26$ ) 모두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인자녀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및 효과간 크기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모형설정과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Figure 6>, 적합지수가  $\chi^2 = 26.44$ ,  $df = 16$ ,  $p > .01$ , TLI = .98, CFI = .99, RMSEA = .049으로 좋은 적합도(close fit)를 가진 모형으로 나타났다. 부부 모두 성인자녀관계는 정신건강의 문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기와 상대방효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부 모두 자신이 지각한 성인자녀와의 관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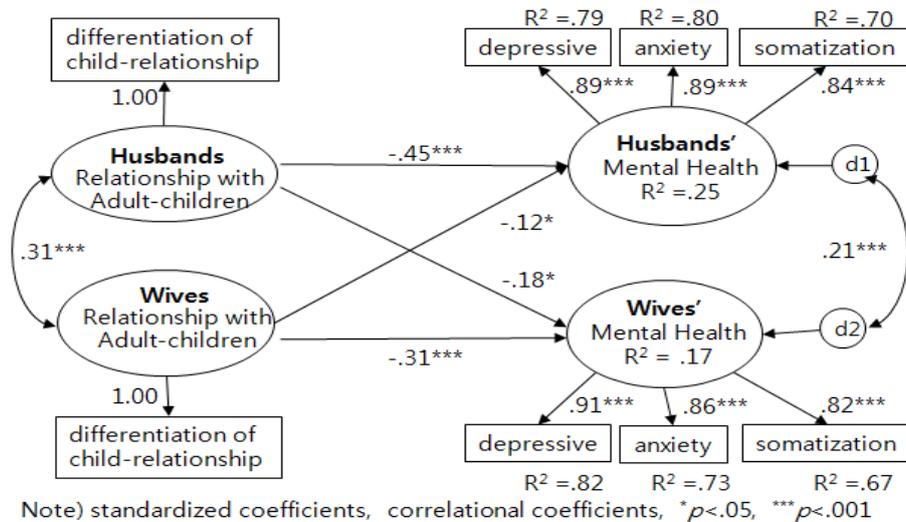


Figure 6. Actor-Partner Effects of Relationship with Adult-children on Mental Health

상대 배우자가 지각한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신의 정신건강의 문제 증상들이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부의 각 효과간 크기 차이를 비교 확인한 결과, 첫째, 성인자녀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남편의 자기효과( $\beta = -.45$ )와 부인의 자기효과( $\beta = -.31$ ) 크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 $\Delta df(1), \Delta \chi^2 = 2.67$ ), 성인자녀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자기효과의 크기는 남편과 부인간에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남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성인자녀관계의 자기효과( $\beta = -.45$ )와 상대방효과( $\beta = -.12$ ) 크기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Delta df(1), \Delta \chi^2 = 11.16$ ). 즉 남편의 경우 부인이 지각하는 성인자녀관계보다 남편 자신이 지각하는 성인자녀관계가 자신의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인자녀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남편의 상대방 효과( $\beta = -.12$ )와 부인의 상대방 효과( $\beta = -.18$ )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Delta df(1), \Delta \chi^2 = 0.36$ ) 남편과 부인 모두 상대방효과의 크기는 서로 비슷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성인자녀관계의 자기효과( $\beta = -.31$ )와 상대방효과( $\beta = -.18$ )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Delta df(1), \Delta \chi^2 = 1.90$ ), 부인의 경우 자신이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관계나 남편이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영향 크기에는 차이가 없이 부인 자신 및 남편이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부인 자신의 정신건강의 문제 증상이 감소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남편과 부인의 성인자녀관계에서의 상관( $r = .31$ )과 정신건강에서의 상관( $r = .21$ )도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남편의 정신건강 수준은 남편 자신이 지각하는 성인자녀관계 정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나, 부인의 정신건강 수준은 남편 뿐 아니라 자신이 지각하는 성인자녀관계 모두가 비슷한 크기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인자녀관계 매개모형에서의 자기와 상대방효과 및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모형인 결혼적응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인자녀관계에 대한 매개모형의 적합도 및 매개효과와 개별경로에 대한 자기효과, 상대방효과를 살펴보았다(<Figure 7>, <Table 2> 참조). 성인자녀관계의 매개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88.53, df = 41, p > .001, TLI = .96, CFI = .97, RMSEA = .066$ 으로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를 가진 모형이면서 자료가 전체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자녀관계의 매개모형은 남편의 정신건강 변량의 31%, 부인의 정신건강 변량의 25%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Figure 7>에서 볼 수 있듯이 남편의 결혼적응에서 부인의 성인자녀관계 및 정신건강으로 가는 직접경로와 부인의 결혼적응에서 남편의 성인자녀관계 및 정신건강으로 가는 직접경로, 부인의 성인자녀관계에서 남편의 정신건강으로 가는 직접경로 모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인자녀관계의 매개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경로계수에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가는 직접효과와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로 가는 간접효과가 있다. 간접효과는 곧 매개효과로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경로의 곱으로 나타내며, 총효과(total effect)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으로 나타낸다. 성인자녀관계의 매개효과(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Sobel 검증(Baron & Kenny, 1996)을 실시하였고, 검증 결과와 직·간접 효과 및 총효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남편과 부인 모두 결혼적응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자기효과(남편  $\beta = -.41, p < .001$ ; 부인  $\beta = -.39, p < .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상대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남편의 성인자녀관계는 남편 자신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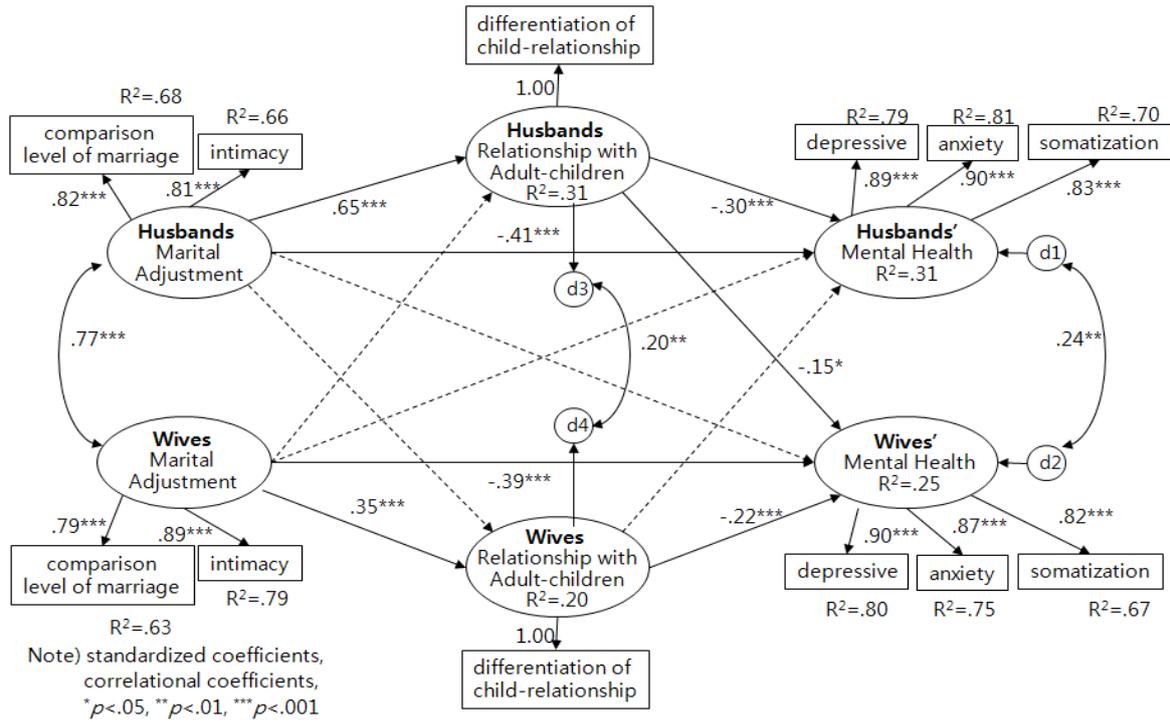


Figure 7. Structural Model

Table 2. Actor-Partner Effects and Effect Decomposition of Structural Model

Effect	Path	Standardized coefficient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obel Test Z
Direct	actor H H marital adjustment → H mental health	-.41 ***	-.34	-
	actor W W marital adjustment → W mental health	-.39 **	-.27	-
	partner H W marital adjustment → H mental health	-.17	-.13	-
	partner W H marital adjustment → W mental health	-.15	-.13	-
Indirect	actor H H marital → H child-relationship → H mental	-.20 ***	-.16 (.66 × .25)	-3.18
	actor W W marital → W child-relationship → W mental	-.08 *	-.05 (.29 × .18)	-2.16
	partner W H marital → H child-relationship → W mental	-.09 †	-.07 (.66 × .12)	-1.78
	partner W W marital → H child-relationship → W mental	.06	.03 (-.27 × .12)	1.60
Total	Husbands H marital adjustment → H mental health	-.61 *	-.51	-
	Husbands W marital adjustment → H mental health	-.19	-.14	-
	Wives W marital adjustment → W mental health	-.45 *	-.32	-
	Wives H marital adjustment → W mental health	-.03	-.02	-
매개모형 적합도		$\chi^2 = 88.53, df = 41, p > .001, TLI = .96, CFI = .97, RMSEA = .066$		

Note) H= Husbands, W= Wives. \* $p < .05$ , \*\* $p < .01$ , \*\*\* $p < .001$

자기효과( $\beta = -.30, p < .001$ )와 부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상대방효과( $\beta = -.15, p < .05$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부인의 성인자녀관계는 자신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 $\beta = -.22, p < .001$ )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결혼적응이 자신이 지각한 성인자녀관계를 거쳐 자신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간접효과)는 남편과 부인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경우 결혼적응이 성인자녀관계를 통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즉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Sobel test로 확인한 결과, Z 값이  $-3.18, p < .001$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부인의 경우도 결혼적응이 자신의 성인자녀관계를 매개로 자신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Z 값이  $-2.16, p < .05$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부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상대방효과 즉 남편의 결혼적응이 남편이 지각한 성인자녀관계를 매개로 부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는 Z 값이  $-1.79, p = .07$ 로 유의하지 않았고, 부인의 결혼적응이 남편이 지각한 성인자녀관계를 매개로 부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Z = 1.60, p > .05$ )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유의한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부부간 효과크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인자녀관계에서 정신건강으로 가는 남편( $\beta = -.30$ )과 부인( $\beta = -.22$ )의 자기효과에서만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 $\Delta df(1), \Delta \chi^2 = 4.52$ )가 나타나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이 지각한 성인자녀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증상이 감소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남편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음을 보였다. 종합하면,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의 정신건강은 자신의 결혼적응과 성인자녀관계 정도에 의해 직접인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이 지각한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결혼적응과 부인의 결혼적응( $\beta = .77, p < .001$ ), 남편의 성인자녀관계와 부인의 성인자녀관계( $\beta = .20, p < .01$ ), 남편의 정신건강과 부인의 정신건강( $\beta = .24, p < .01$ )은 서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271쌍의 노년기 부부자료를 토대로 APIM 모형을 적용하여, 노년기 부부의 결혼적응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 모형, 결혼적응과 성인자녀관계간의 관계모형, 성인자녀관계와 정신건강간의 관계 모형 및 노년기 부부의 결혼적응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인자녀관계가 매개하는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기초로 몇 가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적응, 성인자녀관계, 정신건강의 남편과 부인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결혼적응을 나타내는 결혼비교수준과

친밀감 모두 남편이 부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한 선행연구들(Im & Kim, 2002; Kwon & Hur, 2010)과 일치하며, 노년기 뿐 만 아니라 가족주기 전반에 걸쳐 여성의 결혼만족이 남성보다 낮음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는 여성 노인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헌신적인 가정관리, 남성 노인에 대한 희생적 수발 및 낮은 대우 등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신건강의 우울과 신체화 수준이 남편보다 부인이 더 높게 나타나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들(Sung & Cho, 2006)과 일치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건강의 취약성에 있어서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더 취약하여 우울과 신체화 증상이 여성노인에게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APIM을 적용한 주요 변인간 관계 모형에서, 결혼적응과 성인자녀관계간의 관계 모형과 결혼적응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모형에서는 부부 모두 자기효과만 나타나 자신의 결혼적응 정도가 자신의 성인자녀관계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결혼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성인자녀관계는 좋아지는 반면, 정신건강의 문제 증상은 감소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혼적응과 정신건강의 문제 증상간 부적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Lee, 2005) 및 부부를 대상으로 1년 전의 결혼적응도와 1년 후의 우울정도간의 관련성에 대한 종단적 연구에서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의 결혼적응도는 상대방의 우울보다는 자신의 우울과 더 부적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Beach 등(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또한 결혼적응과 성인자녀관계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선행연구(Kim, 1995)와도 일치했다. 본 연구결과에서 자신의 결혼적응도가 배우자의 성인자녀관계 수준과 정신건강의 문제 증상에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자신의 성인자녀관계와 정신건강의 문제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성인자녀관계나 정신건강에 대한 책임이 상대 배우자의 결혼적응도보다는 자기 자신이 지각하는 결혼적응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자신의 성인자녀관계 및 정신건강은 상대 배우자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결혼적응 정도 혹은 자신의 결혼생활 역할에 따라 더 많이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부관계나 성인자녀관계를 향상시키고 정신건강의 문제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의 주체는 상대 배우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의 행동 변화는 곧 자기 자신의 관계 및 문제행동 결과와 직결되며, 상대 배우자의 행동 변화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결혼적응과 성인자녀관계간의 관계 모형과 결혼적응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모형에서 자기효과만이 나타났고, 이 자기효과에 대한 크기 정도가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결혼적응의 자기효과 크기

는 부부간에 그 크기가 비슷한 반면, 성인자녀관계에 미치는 결혼적응의 자기효과 크기는 부인보다 남편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가족주기와 달리 노년기의 여성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 이외의 생활 사건들로 관심이 많이 분산되는 반면, 남성들은 은퇴로 생활범위가 가족으로 축소되어 소극적이고 많은 시간을 가정의 일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가족의 부인, 자녀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점을 일부분 반영한 결과로 보여 진다.

다음으로 성인자녀관계와 정신건강간의 관계 모형에서는 자기효과 뿐 아니라 상대방효과 모두가 나타나,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의 성인자녀관계가 자신의 정신건강과 상대 배우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즉 상대 배우자가 성인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정신건강 뿐 아니라 배우자의 정신건강 문제 또한 감소시킨다. 이는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있어서 성인자녀관계가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밝힌 여러 선행연구결과(Ann, 2005; Oh, 2003; Quinn, 1983; Song & Marks, 2006)와 유사하다. 또한, 본 연구의 노년기 부부 연령대가 주로 연소노인들로 이 시기의 가족주기 발달 상 노부부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민들을 살펴보면, 자녀의 취업관련 문제, 결혼이 늦어지는 만혼, 결혼 이후 임신과 출산 문제, 자녀의 맞벌이로 인한 손자녀 양육 등으로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다면 노년기 부부의 부부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에 의해 노년기 부부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자기 및 상대방 효과 크기에 대한 부부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남편과 부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성인자녀관계의 자기효과 크기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가족 지향적이고, 여성노인은 자녀를, 남성노인은 배우자를 중요시 한다는 연구결과(Chung, 2007; Kim, 2008)들을 통해 볼 때 본 연구결과가 일반적인 예측과는 다르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무엇이 이러한 연구결과를 이끌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관련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남편의 정신건강은 상대방효과보다 자기효과가 일관되게 더 크게 나타난 반면, 부인의 정신건강은 성인자녀관계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서로 비슷한 크기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관계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더 심사숙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 연구결과(Acitelli & Young, 1996)를 지지하면서, 남편들보다 부인들이 상대 배우자의 행동을 더 민감하게 지각한다(Floyd & Markman, 1983)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남편보다 부인들이 상대 배우자의 행동이나 상태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결혼적응, 성인자녀관계, 정신건강에 있어서

남편과 부인간에 정적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노년기 부부가 오랜기간 동안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상호 독특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현상을 나타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본 연구가 부부인 쌍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부부 서로가 상관이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해 주면서, 부부 쌍 자료의 비독립성을 고려하여 동일집단 내 구성원 간의 유사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셋째, 노년기 부부의 결혼적응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인자녀관계가 매개하는 모형을 검증한 결과,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이 지각한 결혼적응이 자신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신이 지각하는 성인자녀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결혼적응과 성인자녀관계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Ann, 2005; Lee, 2005; Song & Marks, 2006; Tower & Kasl, 1996)를 확인한 것 뿐 만 아니라, 성인자녀의 지원이 노년기 결혼지위와 정신건강간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Son(201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노년기의 정신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적응 정도를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성인자녀와의 관계도 증진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노년기의 정신건강 상담 시 부부의 결혼적응 뿐 아니라 성인자녀와의 관계도 주요 요인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성인자녀관계 매개모형에서 남편과 부인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본 결과, 노년기 부부의 정신건강은 상대 배우자의 특징이나 행동보다는 자신이 지각한 결혼적응 및 성인자녀관계 정도 등 자신의 특징이나 행동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자기효과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중 부인은 남편의 성인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는 상대방효과도 부분적으로 나타났음이 특이할만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노년기 남편과 부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임상 상담 시 공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과 성별에 따라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는 결혼적응과 성인자녀관계 및 정신건강에서 부부간 상호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았지만, 점차 영역을 넓혀 다양한 측면에서 부부 상호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가 갖는 몇 가지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한점으로 먼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특정 지역에서 연구자가 임의로 표집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전집의 대표성을 보장할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노인의 정신건강에 성인자녀관계 뿐 아니라 손자녀와의 관계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연구결과에 비추어 손자녀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추후연구에 필요하겠다. 셋째,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대한 결혼적응과 성인자녀관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및 매개효과가 본 연구에서 지지되었으나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한 시점의 자료가 아닌 인과관계를 엿볼 수 있는 종단자료를 채택하여 향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APIM을 통해 주요 변인간의 각 관계 모형과 노년기 부부의 결혼적응과 정신건강에서 성인 자녀관계를 매개한 매개모형 각각에 대하여 노년기 부부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리하여 검증 해보았다는 점은 남성노인 혹은 여성노인의 결혼적응과 정신건강, 결혼적응과 자녀관계만을 분석하였던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각 관계를 남편과 부인으로 나누어 구체화시켜 그 영향을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부와 같은 중요한 이차관계를 분석하는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부부 모두의 응답을 얻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방법의 적용으로 여러 대인관계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계인 부부, 부모-자녀와 같은 친밀한 짝 연구들이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한다.

#### REFERENCE

- 국민일보(2010). 노인 자살예방 우울부터 치료해야. 2010. 10. 25.
- 권석만 · 민병배(2005). 노인 정신장애. 서울: 학지사.
- 세계보건기구(2009). 2009 세계보건통계 보고서.
- 통계청(2009). 고령자 통계.
- Abbey, A., Abramis, D. J., & Caplan, R. D.(1985). Effects of different source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conflict on emotional well-being.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6, 111-129.
- Acitelli, L. K., & Young, A. M.(1996). Gender and thought in relationships. In G. Fletcher and J. Fitness(Eds.), *Knowledge structures and interactions in close relationships: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
- Ahn, Y.(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meaning of life,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12(4), 576-585.
- An, J.(2005).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 to late adulthood of american: Parent-child relationship across the lifespan and generativity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5(2), 245-266.
- An, J., & Jun, H.(2012).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transitioning into retirement on mental health among the middle-aged: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7(1), 65-85.
- Anderson, S. A., & Sabatelli, R. M.(1992). 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DIF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77-89.
- Ann, K.(2005).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support of married couples and single households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5(1), 1-19.
- Antonucci, T. C.(1990). Social supports and social relationships. In Binstock, R. H. & George, L. K.(Ed.). *Handbook of aging and thesocial sciences*. N.Y.: Academic Press
- Atchley, R. C.(1992). Retire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In Szinovacz, M., Ekerdt, D. J., & Vinick, B. H.(Eds.), *Family and Retirement*. Newbury Park: Sage.
- Bae, N., & Park, C.(2009).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9(2), 761-779.
- Beach, S., Katz, J., Kim, S., & Brody, G. H.(2003). Prospectiv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on depressive symptoms in established marriages : A dyadic model.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 355-371.
- Broucke, S. L., & Vertommen, H., & Vandereycken, W. (1996).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marital intimacy questionnaire. *Family Relations*, 44(3), 285-290.
- Carstensen, L. L.(1993). Social and emotional patterns in adulthood: Support for sociomotional selectivity theory. *Psychology and Aging*, 7(3), 331-338.
- Cho, H., & Choi, S.(2011). Effects of the spousal relationship's factors i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11), 313-328.
- Cho, M.(2002). The de facto mental illness in korean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1(5), 758-766.
- Chung, S.(2007).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successful aging of korean women: the young adults, Middle age, and old age wome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6, 201-220.

- Cook, W. L., & Kenny, D. A.(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 101-109.
- Cook, W. L., & Snyder, D. K.(2005). Analysing non-independent outcomes in couple therapy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 133-141.
- Cowan, C. P., & Cowan, P. A.(1992). *When partners become parents: The big life change for couples*.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erogatis, L. R.(2000). *BSI 18 Brief symptom Inventory 18,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NCS Pearson, INC, Minneapolis, MN, USA.
- Elkowitz, E. B., & Virginia, A. T.(1980). Relationship of depression to physical and psychologic complaints in the widowed elderly.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28*(11), 507-510.
- Finch, J. F., & West, S. G.(1997). The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Statistical mode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439-485.
- Floyd, F. J., & Markman, H. J.(1983). Observational biases in spouse observation: Toward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marri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450-457.
- Han, H., & Lee, Y.(2009). A study on factors impacting on the mental health level of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9*(3), 805-822.
- Higgins, E. T.(1989). Self-discrepancy theory: What patterns of self-beliefs cause people to suffer? In L. Berkowitz (Ed.). N.Y.: Academic Press.
- Hong, E.(2010). *Study on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of parent-child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Korea.
- House, J. S., & Robbins, C.(1983). *Aging in Society: Selected Review of Recent Research*. edited by Reiley, M. W, Hess, B. B., & Bond, K. Hillsdale, NJ: Lawrence.
- Im, S., & Kim, T.(2002). A study on marital stress and marital Instability of elderly couple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1*(3), 111-128.
- Jeong, Y.(2012). The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s on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the attachment style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2*(3), 869-893.
- Jun, G., & Im, S.(1998). A study on marital conflict and depression in old ag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6), 1-12.
- Karney, D. A., & Bradbury, T. N.(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enny, D. A.(1996).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 279-294.
- Kenny, D. A., & Cook, W. L.(1999). Partner effects in relationship research: Conceptual issues, analytic difficulties, and illustrations. *Personal Relationships, 6*, 433-448.
- Kenny, D. A., & Nasby, W.(1980). Splitting the reciprocity corre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49-256.
- Kenny, D.A., Kashy, D. a., & Cook, W. L.(2006). *Dyadic data analysis*. N.Y.: Guilford Press.
- Kim, C., & Kim, I.(2000). Patterns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and th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2), 155-168.
- Kim, H.(1995). *Middle and old aged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 of married couple and attachment and autonomy for children*.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Kim, J.(2008).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Chosun University Master's Thesis
- Kim, K., & Lee, S.(2003). Marital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in aged coupl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1), 139-153.
- Kim, M.(2004). Factors affecting on the depressive symptoms of older women in the USA: The comparison between married and widowed.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4*(4), 147-164.
- Kim, O.(2003). The old's health,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rural community. *Th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8*(2), 5-22.
- Kim, S., & Seo, Y.(2010).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perceived marit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Testing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stress and perceived marit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5*(2), 189-213.
- Kim, S., Jang, Y., & Seo, H.(2011). The influence of mar-

- ital satisfaction on the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1(2), 305-319.
- Kim, T., & Jun, G.(2002). Characteristics of the marriage and marital stability among elderly coup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4), 197-206.
- Kim, T., Kim, D., Kim M., Lee Y., & Kim A.(1998).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for the aged.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8(1), 150-169.
- Kwon, J., & Cho, J.(2000).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3), 61-76.
- Kwon, O., & Hur, J.(2010).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coupl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7, 7-30.
- Lee, H., & Kim, Y.(2004). The Effects of marital relationship(love and sexual attitude) in Later life on quality of lif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4(40), 197-214.
- Lee, H., Kang, E, & Kim, S.(2010).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death anxiety: Examination of impact of family function, spiritual well-being and ego-integrit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9, 311-332.
- Lee, S.(2005). *Life Activity Patter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Older Men Retirees*.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university.
- Miller, R. S., & Lefcourt, H. M. (1982). The assessment of Social Intim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5), 514-518.
- Nam, S.(2001). *The study on the dynamics of emotional system of family*.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Oh, H.(2003). *Impact of the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Life-Satisfaction of the Elderly*. Doctoral dissertation. Taegu University
- Park, K.(2004). Gender differences i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4(3), 13-29.
- Patton, D., & Waring, E. M.(1984). The quality and quantity of marital intimacy in the marriage of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10, 201-206.
- Quinn, W. H (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57-74.
- Ross, C. E.(1995). Reconceptualizing marital status as a continuum of social attach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129-140.
- Russel, R. J., & Wells, P. A.(1994). Predictor of happiness in married coup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3), 313-321.
- Sheehan, B., & Banerjee, S.(1999). Somatization in th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4, 1044-1049.
- Shin, H., & Seo, B.(1992). The influence of aged parents-adult children solidarity on the psychological distress of aged parent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2(2), 99-108.
- Son, D.(2005). The study on the effective factors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5(4), 205-217.
- Son, J.(2011). *Effects of marital status on health among older adults: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economic and social resource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 Song, J., & Marks, N. F.(2006). Parent-adult child relationships and mental health among older parents: A longitudinal U. S. national stud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6(3), 581-599.
- Sung, H., & Cho, H.(2006). Productive activ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6), 35-45.
- Thibaut, J. W., & Kelley, H. H.(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Tower, R. B., & Kasl, S. V.(1996). Gender, marital closen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elderly couples. *Journal of Gerontology*, 51(3), 115-129.
- Yeo, I., & Kim, K.(2005). The impact of the death anxiety and social activity on the depress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Korea academy of family social work*, 16, 75-101
- Yoo, J., & Sung, H.(2009).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 on depress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9(2), 717-728.
- Yoon, G., & Schumm, W. R.(1993). Measuring comparison level and comparison level for alternatives in marital relationships from the exchange theory per-

spectives : Development of the Comparison Level Scale and the Comparison Level for Alternatives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1(4), 133-140.

Yoon, H., & Yoo, H.(2006). Influences of family relations on the successful aging. *Journal of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8, 5-31.

- 접수 일 : 2012년 11월 15일
- 심사 일 : 2012년 12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2월 18일

## &lt;Appendix&gt; Correlation Matrix, Skewness and Kurtosis of Measured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H Comparison level	-											
2. H Intimacy	.67***	-										
3. H child-relationship	.49***	.41***	-									
4. H Depressive mood	-.36***	-.29***	-.46***	-								
5. H Anxiety	-.38***	-.34***	-.44***	.79***	-							
6. H Somatization	-.31***	-.27***	-.36***	.74***	.75***	-						
7. W Comparison level	.52***	.47***	.33***	-.26***	-.26***	-.21***	-					
8. W Intimacy	.52***	.60***	.31***	-.18**	-.22***	-.16**	.70***	-				
9. W child-relationship	.29***	.34***	.34***	-.24***	-.21***	-.21***	.34***	.39***	-			
10. W Depressive mood	-.22***	-.19***	-.28***	.26***	.27***	.28***	-.30***	-.27***	-.36***	-		
11. W Anxiety	-.29***	-.31***	-.26***	.26***	.29***	.27***	-.42***	-.42***	-.35***	.77***	-	
12. W Somatization	-.18**	-.15*	-.16**	.20**	.19**	.30***	-.25***	-.22***	-.27***	.75***	.71***	-
Skewness	-.57	-.33	-.29	1.15	1.13	1.14	-.29	-.35	-.24	.89	.85	.89
Kurtosis	.10	.19	1.04	.68	1.43	1.30	-.63	-.28	.24	.74	.74	.71

Note). N = 271 couples, H = Husbands, W = Wives, Comparison level = Comparison level of marriage, child-relationship = Differentiation of child-relationship

\* $p < .05$ , \*\* $p < .01$ , \*\*\* $p < .001$